

*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		다함께
*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		다함께
기도 Prayer		장헬렌
*주님의기도 Lord's Prayer		다함께
*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	고후 4:16-5:10	다함께
말씀선포 Sermon	보이지 않는 믿음	유형선
*찬양 Praise		다함께
*봉헌&축도 Offering&Benediction		유형선

*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
현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.

주일대표기도

7월 2일	7월 9일
윤한진	서경열

예배시간안내

주일예배	오후 2시
아침묵상	(화-금) 매일 오전 6시 (Youtube)

공동기도제목

1. 말씀 안에서 -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
2. 나라와 민족 -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
3. 교회와 선교 -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

넘어 어떻게 그 길을 가셨소

한국교회가 낳은 두 분의 존경받는 목회자가 있습니다. 바로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. 아시다시피 두 분 모두 조국과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이십니다.

특히 손양원 목사님은 여순사건때 두 아들을 공산당원에게 총살 당하는 아픔을 겪으셨지만,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 안재선을 용서해 줄 것을 요구하며 그 원수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겠다고 공언함으로 모든 믿지 않던 자들에게까지 놀라움과 잔잔한 감동을 안겨주신 것으로 유명하십니다.

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'사랑의 원자탄'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. 그 분은 평생 나병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였고, 6.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피난을 포기하고 끝까지 나병환자들 곁을 지키다가 공산당원들에게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는 총살당함으로 49세의 젊은 나이로 순교 하셨습니다.

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손양원 목사님을 소개하고자 하는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.

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처럼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조국과 교회를 위해 희생한 자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점 때문입니다.

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은 순교자의 후손들이 속한 교단은 날로 쇠퇴하고, 일본 천황에게 절을 한 이들의 후손들이 몸 담고 있는 교단은 부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왜 하나님은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놔두시는 것일까. 왜 우리 후손들은 이런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성공과 명예를 포기하고 좁은 길을 간 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일까? 깊은 한숨만이 나올 뿐입니다.

손양원목사님은 남은 유품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. 남편 손양원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입으셨던 피 문은 옷을 후손들을 위해 남기자는 가족들의 성원에도 그것조차 우상이 될 수 있다며 무척산 기도원에서 불태워버리셨다는 사모님 이야기는 감동을 넘어 그 냉정함과 숭고한 신앙의 절개에 저절로 고개가 떨궈질 뿐입니다.

이렇게 산 신앙인도 있는데, 나는 너무도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건 아닌지? 부끄러워지는 요즘입니다.